광주 서구 마륵동 60만평에

'복합 첨단게임단지' 선다

(재)광주정보문화진흥원 '광주 글로벌 게임플랜'

2010년까지 2조원 투입… 테마파크·쇼핑몰 등

게임 테마파크와 체험마을, 게임 쇼핑몰, 게임 박물관, e-스포츠 전용경기장 등이 들어서는 복합 게임첨단 단지가 조성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시 서구 마륵동 및 벽진동 일대 60만평에 세계 복합 게임첨단단지 모델 ' 광주 글로벌 게임플렉스(Gwangju Global Gameplex)' 플랜을 내놨다. 이른바 'G3 프로젝트'로, 예상 사업비만 정부와 민간이 1조원씩 모두 2조원에 이른다.

게임플렉스에 들어서는 시설은 크게 ▲비즈니스 시설(게임박물관·게임 아카데미·게임수출진흥센터·게임저작권관리센터)▲상업시설(게임 테마파크·게임체험마을·e-스포츠 전용 경기장·게임 쇼핑몰·게임 스트리트)▲기업 A/S 지원영역(게임과 몰입 클리닉센터·게임엑스포·게임 콜센터·게임 서비스 운영센터·게임전문 유통센터) 등이다. 관광·문화·콘텐츠·IT를 결부시킨 엔터테인먼트 메카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진흥원측 복안이다.

진흥원은 오는 2010년까지 이같은 시설이 만들어지면 광주가 엔터테인먼트 파크 형태의 게임 문화 본거지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3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비롯, 매년 600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예산. 진흥원은 우선적으로 1천500억원에 이르는 게임테마파크 조성 방안을 광주시가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해달라며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진흥원 양균화 전략기획부장은 "차세대를 선도할 신개념의 동아시아 게임산업 통합허브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관광객 유입과 고용창출·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단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시설들을 갖춰 나간다면 차츰 민간 자본도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공무원 연봉 2억?

경북도, 투자유치 담당 국장급에 제시키로

경북도가 지역 투자 유치 담당 공무원을 공모하면서 '연봉 2억원'이라는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북도는 국장급 자리인 신설 투자통상본부장 적임자 공모에 2억원이라는 초고액 연봉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연봉은 유사한 직급의 공무원 보다 3배나 많을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장관급을 포함, 국내 공무원으로서는 역대 최고액이다. 투자 유치가 자치단체의 사활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현안이 됐다는 반증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경북도는 12일 지원 자격과 공모일정, 투자통상본부장의 기본 역할 등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 늦어도 다음 달 초 공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 투자통상본부장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자리로써, 도는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선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가 핵심이라는 판단에 따라 3급 부이사관이 맡았던 기존 경제통상실장 자리를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로 바꾼 것이다. 억대 연봉은 행자부와 사전 협의만 거치면 기준 연봉의 3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정부 지침을 적용한 것이다.

경북도의 이 같은 발상은 지방행정도 살아남기 위해선 기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민주화운동 유가족 방청 고 강경대씨 아버지인 강민조씨(왼쪽)와 인혁당 사건의 고 도예종씨 부인 신동숙씨(오른쪽에서 두번째)등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12일 오전 민주화운동 관련법을 처리할 예정인 국회 행정자치위에 방청인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함에 따라 유예됐다. /연합뉴스

통신비〉외식비 첫 추월

〈13조원〉 12조9천억

韓銀 상반기 가계소비지출

소비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서도 인터넷과 휴대전화 요금 등 통신비 지출이 크게 늘면서 가계의 외식비 지출규모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실질 기준) 가운데 통신비 지출은 13조268억원을 기록하면서 음식·숙박비 지출액(12조9천630억원)을 능가했다. 통신비 지출이 음식·숙박비 지출을 능가한 것은 올해 상반기가 처음이다.

가계의 통신비 지출규모는 음식·숙박비는 물론 교육비(상반기 지출액 9조1천38억원), 의류 및 신발(8조1천506억원), 의료.보건(8조567억원) 지출액보다 훨씬 큰 규모에 해당한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통신비는 25조4천130억원에 달해 음식·숙박(25조7천988억원)에 근소하게 뒤졌으나 교육비(18조6천919억원), 의료·보건비(15조9천205억원)는 크게 앞질렀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의 경우 통신비 지출액은 연간 8조8천402억원으로 교육비(15조2천903억원)의 거의 절반수준이었으며 음식·숙박비(20조961억원)와 비교해서는 절반에도 못미쳤다.

그러나 이후 여타 지출항목들이 거의 제자리걸음을 한데 비해 통신비 지출은 매년 크게 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가계지출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이는 97년의 3.0%에 비해서는 배 이상으로 비중이 확대된 것이다.

/연합뉴스

"제한된 단체행동권 수용"

전공노. 정부측에 대화 제의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은 12일 "제한된 단체행동권을 수용할 수 있다"며 정부측에 대화를 제의했다.

전공노는 그동안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민간기업 노조처럼 보장되지 않을 경우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고 법외노조로 남아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해 왔다.

/연합뉴스

일제 징용 희생자 유족 위로금 내년 하반기 2,000만원씩 지급

각의, 법제정안 의결

일제 강점기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사망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1인당 2천만원씩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1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법 제정안 등 법안 9건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일제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기간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유족에게 1인당 2천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다만 1975년 정부로 부터 보상금(30만원)을 받은 유족의 경우 보상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234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제정안은 또 당시 부상 장해자의 유족에게는 2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장해등급별로 차등화해 위로금을 주고, 강제 동원 후 귀환한 생존자에게는 사망시까지 의료비 일부(연 50만원 한도)를 지원토록 했다. 의료비 지원은 법시행 이전까지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께 총리 산하에 지원 대상 및 보상금액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가 설치되며, 위로금을 받으려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원위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올 연말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 부모,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연합뉴스

근로자 해고땐 반드시 서면 통보해야

노사정 합의 '로드맵'

내년부터 해고 사유와 시점을 서면으로 명시해 통보해야 하는 등 해고 관련 법 조항들이 대폭 개선된다.

12일 노사정간 합의가 이뤄진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따르면 2007년부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 및 시점을 서면으로 명시해 통보해야 한다.

해고사유 서면 통보 의무화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고 시점과 사유를 놓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사전통보 기간은 현행 60일에서 기업 규모와 해고 규모에 따라 30~60일로 차등 설정된다.

상시근로자가 5천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60일전에 사전통보해야 하고 ▲1천인 이상~5천인 미만 사업장에서 10%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1천인 미만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45일전에 정리해고 사실을 사전통보해야 한다.

정리해고를 실시한 기업이 경영 정상화로 정리해고 후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에 신규 채용을 할 때는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晩日만평

- 김종두

진짜 '막말'이 뭔지를 좀…

"호남고속도 건설비 1조1천억 지금까지 통행료 징수 2조원"

통행료 더 받아선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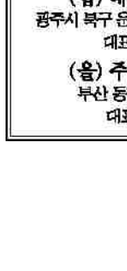
우리당 유필우의원 주장

지금까지 징수한 통행료가 고속도로 건설비를 넘는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내놓은 고속국도 통행료 징수실태와 회수율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의 경우 1조1천880억원의 건설 비용에 2조858억원을 통행료로 회수해 회수율 175.6%를 기록했다. 또 남해고속도로는 건설 비용 1조2천934억원 가운데 2조2천464억원을 회수, 173.7%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전국적으로는 울산고속도로가 464.3%로 회수율이 가장 높았고 경인고속도로가 307.6%, 경부고속도로가 225.3%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19개 노선 가운데 2005년 말 현재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울산고속도로의 회수율이 100%를 넘어섰으며 이 5개 노선통행료를 합하면 약 15조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광고 원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우측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히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
사설금융·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직통 :(062)227-9600, 220-0524, 0525
•FAX:227-9500
◆광주은행 : 001-107-228160 ◆농 협 : 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정 정 공 고
광주일보 2006년 9월 8일자 4면에 게재된 면책결정확정공고 중 사건번호 2004하단133을 2004라 133으로 정정공고합니다.

분 실
자기앞수표
№ 가가00508844~7
금액 각금100,000원(4매)
발행일 2006년 9월 7일
발행처 광주은행 영업부지점
최후소지인 정태양
상기 수표를 분실 공고함.

분할합병 공고
(채권자 이의 제출공고)
주식회사 신명전력(이하"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에이스테크(이하"을"이라 한다)는 서기 2006년 09월 12일 각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의 전기공사업 영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갑"과 분할합병하고, "을"은 존속하며, 상법 제530조의3 제3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각 회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06년 9월 13일
"갑" 주식회사 신명전력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3가 271-47
대표이사 이 시 명
"을" 주식회사 에이스테크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110-3
대표이사 임 군 택

분할합병 공고
2006년 9월 12일 각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행운전력(이하"갑")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주식회사 신일전기(이하"을")가 분할합병("갑"의 전기공사업부분의 권리의무를 "을"이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되, 관계회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내로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주제위께서도 동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6년 9월 13일
"갑" 주식회사 행운전력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366-1 서호골드크층101호
대표이사 박 남 수
"을" 주식회사 신일전기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150-3
대표이사 박 천 자

한정승인공고(경정)
망 나성규(660205-1661413) 심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시행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즈기 62 심판경정
공 고 인:1.김원자 2.나현호 3.나경환 (위 청구인 2.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원자)
한정승인수리일:2006. 8. 29
공고기간:2006. 9. 13~11. 12
연 락 처:광주 남구 진월동 312-7 광명아파트 101-1607 김원자(011-645-7471)

무 담 보
무 보 증
가계·당좌·어음수표·차량급전
연락처 010-4408-8911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대하전기 주식회사(갑)과 주식회사 세양전기(을)은 각 2006년 9월 12일 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분할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갑)은 (을)의 목적중 전기공사업(면허번호 : 부산-00212)을 분할하여 (갑) 회사에 병합이 필요하오니 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각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 12일
(갑) 대하전기 주식회사
광주시 북구 운암동 110-40 혜님빌딩 5층
대표이사 김 철 호
(을) 주식회사 세양전기
부산 동래구 사직3동 148-1
대표이사 홍 준 식

분할합병 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한일(이하"갑"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경도개발(이하"을"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태영엔이씨(이하"병"이라 한다)의 서기 2006년 09월 12일 각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을"과 "병"의 전기공사업 영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을 "갑"과 분할합병하고, "을"과 "병"은 존속하기로 결의 하였으며,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의 정에 따른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의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06년 9월 13일
"갑" 주식회사 한일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092-4
대표이사 이 충 숙
"을" 주식회사 경도개발
나주시 문곡동 7-44
대표이사 조 금 숙
"병" 주식회사 태영엔이씨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9-17 현대빌딩 702호
대표이사 이 석 재

건물임대
1층 225평
2층 225평
3층 225평
4층 135평
◉대지 720평 ◉주차 80대
◉하남무진로 80m 도로변
◉한국농촌공사 옆 건물
☎017-620-2311
010-2255-2600

철저한 독일인의 장인정신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판매(타사 보청기 환영) 세계최첨단
독일보청기 90개월할부식 / 100%디지털고막형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음향이득효과가 큽니다.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신경성 난청에 큰도움이 됩니다. • 반영구적입니다.
• 피드백 현상이 제거되었습니다.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전터미널 건너편 6층(광명빌딩603호)
☎062)222-1510 아)573-5106

당행은 새로운 금융인 양성기관임을 자부하며 꿈을 가진 인재를 모집합니다.
홍익저축은행 2006년도 행원 모집
1. 모집부문
신입 및 경력행원

모집인원	구 분	지원자격	공통사항
남. 여 00명	신입행원	- 1976년 9월 이후 출생자 - 최종학교 성적 상위 20%이상 (GPA 3.0 이상)	근무지 : 본점 및 지점 (광주, 목포)
	경력행원	- 1971년 9월 이후 출생자 - 금융회사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2. 공통사항
- 고졸이상(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
- 용모가 수려하고 IQ, EQ, SQ가 높다고 자부하는 분
-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성, 창의성, 정직성, 진취성을 겸비한 분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3.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A4 3매 내외),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
4.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전형 • 3차 : 면접 및 구술시험
5. 원서접수
2006년 9월 14일(목) 17:00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14일 한)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97-4 홍익저축은행 2층
경영혁신본부(전화 : 062-368-6509)
•접수된 서류는 지원하신 분이 원하면 돌려 드립니다.

부동산금융전문그룹
홍익저축은행
www.hongikbank.co.kr